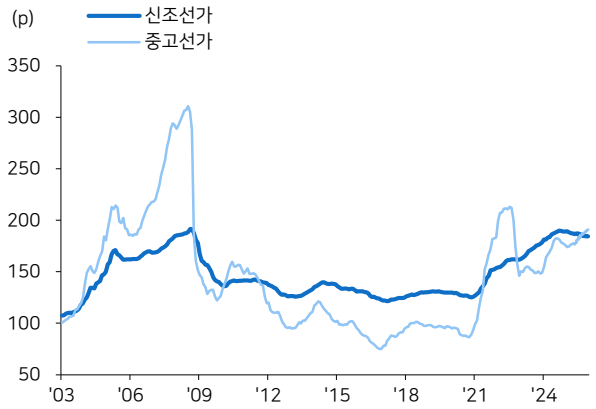
2026. 1. 2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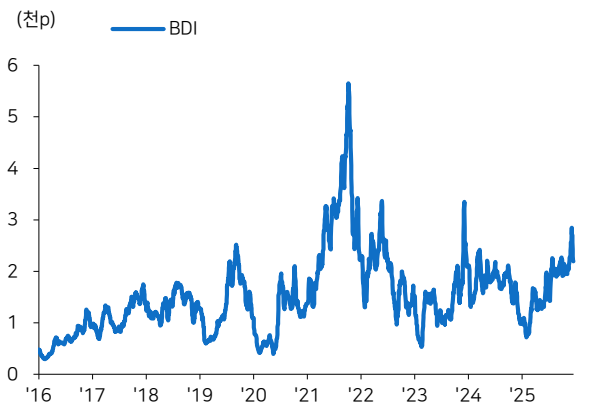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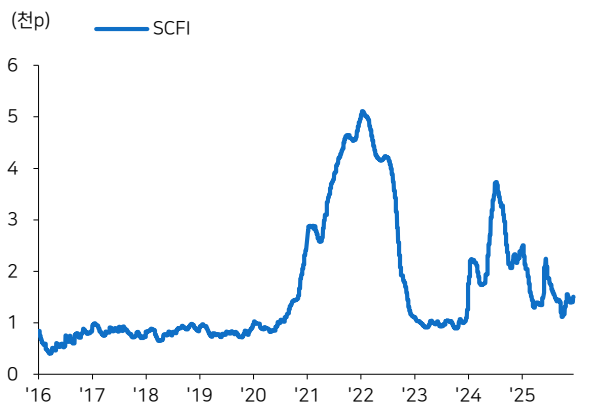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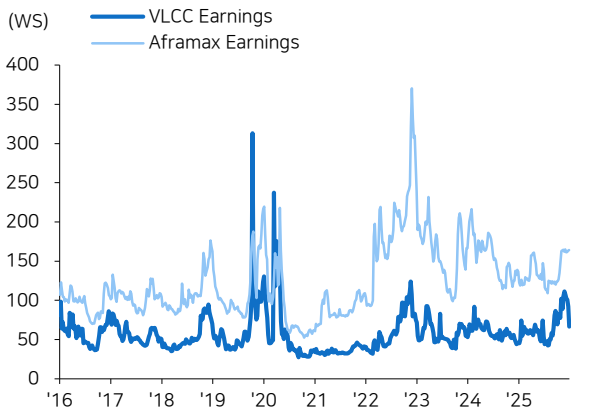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77.0p (-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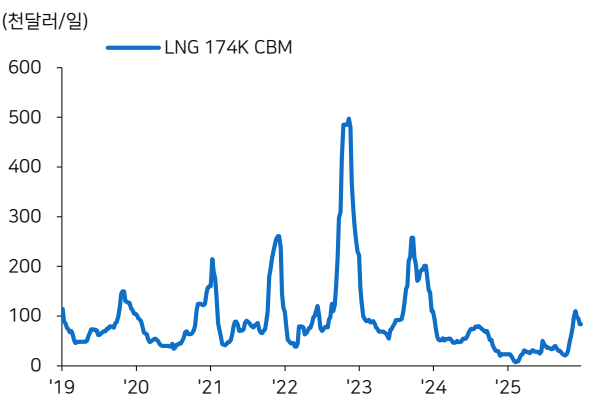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56.3p (+103.4p WoW)



VLCC Spot Rate 66.5WS (-25.5p WoW)



LNG Spot 운임 83.5천달러 (-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수주 랠리 이어지는 조선업계...새해 목표 수주액 높일까 — **이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수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으며, LNG 운반선 중심의 수주 호황과 실적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고 보도됨. 올해는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증가 전망과 한미 조선협력 MASGA 본격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기업 협력 언급으로 추가 성장 여력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짐. 다만 중국 조선소 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속에서 친환경 · 디지털 기술 투자 지속이 중장기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적된다고 전해짐. (https://buly.kr/GE9JZJD)

베트남 PVSM,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3 척 건조 계약... 'K-조선'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 산하의 페트로베트남 조선기계공업(PVSM)이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업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56,850 DWT급 suezmax 원유 유조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20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총 약 40개월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설계 · 제작 · 인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술 감독을 수행하며, 이번 파트너십은 베트남 조선업이 단순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인 대형 상선 분야로 진출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해짐. (https://buly.kr/9BX0KS4)

LNG charter rates slide as year closes: What does 2026 hold? — **TradeWinds**

연말을 맞아 현대식 LNG 운반선 스팟 용선료가 11월과 12월 초 일시적 급등 이후 하락했지만, 2025년 스팟 체결 건수는 467건으로 2024년 360건을 크게 상회했다고 전해짐. 2026년에는 LNG 운반선 신조 84척 인도에 비해 신규 LNG 공급이 연간 3,600만 톤에 그쳐 선복 과잉 부담이 예상되며, 운임이 구조적으로 압박받는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보도됨. 다만 2027~2028년에 1억 1,000만 톤 이상 LNG 수출 능력 확대가 예정돼 있고, 겨울철 변동성과 노후 선박 해체 증가로 기간 용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해질 수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2fey2fZ)

'60 조' 캐나다 잠수함 제안서 마감 '눈앞'...'방산 외교' 서둘러야 — **뉴스 1**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CPSP) 최종 제안서 마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원팀과 독일 Thyssenkrupp Marine Systems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한국은 빠른 납기와 검증된 잠수함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반면 독일은 독일 정부 보증 MRO, NATO 연계 논리, 캐나다 내 생산 · 정비 허브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짐. 전문가에 따르면 ITB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이전 · 정부 차원의 방산 외교 역량이 수주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평가함. (https://buly.kr/AwgaF3p)

HD 현대중공업 'AI 조선소' 승부수...생산성 30% 높인다 — **매일경제**

HD현대는 조선소 운영 전략의 중심을 '미래 첨단 조선소(FOS)' 구축으로 전환하며 설계 · 생산 ·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FOS는 실시간 가시화 단계, AI 기반 예측 · 의사결정 지원 단계, 지능형 자율 운영 단계로 구성되며, HD현대는 2030년까지 최종 단계인 3단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완성해 생산성 30% 향상, 공사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AI 기반 공정 최적화, 디지털 트윈, 피지컬 AI 도입과 함께 암모니아 · 메탄올 · 전기 · 수소 · SMR 등 다양한 탈탄소 추진 기술도 병행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GE9JZQc)

Number of wind-powered ships to pass 100 in 2026 — **TradeWinds**

2026년 초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이 100척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는 유럽 규제 강화와 향후 국제 규범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업계 대응의 일환이라고 보도됨. 2025년 말 기준 89척이 운항 중이고 최대 130척이 건조 중이며, 2026년에는 선복량 500만 dwt에 이를 전망으로 알려짐. 국내에서는 한화오션이 자체 솔루션과 함께 풍력 추진 시험 설비를 개발해 왔다고 전해짐. (https://buly.kr/7mCwa7Y)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